

마산 삼학사 여성축구단

“축구하며 불심, 건강 다져요”



마산 삼학사 축구단원들이 9일 새해 첫 훈련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 빨리 뛰어! 이쪽으로 패스! 경수아, 수현!” 9일, 마산시 내서읍 중리 잔디구장에는 여성 축구단의 높은 함성과 킥박질로 한겨울 추위가 녹고 있었다. 마산 삼학사(주지 영재) 보살들로 구성된 삼학여성축구단(단장 하재연)의 새해 훈련을 담은 연습이 열리던 날이었다. 2004년 4월 열리게 될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을 목표로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한겨울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학여성축구단은

이 날도 삼학사에 모여 부처님 전에 우승을 발원하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삼학여성축구단은 2년 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비만으로 고민하는 신도들에게 주지스님이 축구를 권하면서 창단 됐다.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서너 명의 보살들은 그때부터 몇 분만 뛰어도 숨을 몰아쉬는 스스로의 체력과 고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좋아졌고 힘든 훈련을 견뎌내며 ‘땀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 축구를 통해 생긴

자신감은 평범한 보살에서 친구들을 축구와 불교로 끌어들이는 포교사로 변모했다. 선수들의 열정으로 결국,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25명의 보살들이 모여 이제는 전국 우승을 바라보는 선수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삼학여성축구단은 70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여성축구단 중 여성 불자들이 구성된 유일의 축구단이라는 자긍심도 높다. 이후 남편 들까지 훈련을 돕겠다고 나섰다 서울 대전 무주 등지로 열린 크고 작은 대회에 10여 차례 참가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충주에서 열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는 선수복 대신 법복을 입고 입장해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불자라는 자긍심으로 뛰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산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대회 3위,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여성축구대회 6강이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는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후 기도 때마다 우승을 부처님전에 발

원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2시간 이상의 맹훈련을 감내해 나갔다. 스님이 맡아왔던 감독 겸 코치도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중 축구단을 전국 우승시킬 정도로 축구광인 박경중(66) 대방중학교 교장으로 교체했다. 삼학여성축구단은 최근 대우백화점 직원들, 석전택시 운전사팀 등의 친선경기 요청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축구단에서 가장 연장자인 하재연(50) 단장은 “절에서 신심을 키우는 분들이라 축구도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선수들 자랑이다. 뛰어난 솜씨로 현역 중,고교와 맞먹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공격수로 맹활약중인 이경숙(40) 보살은 “도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더욱 불심이 깊어진다. 건강과 불심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절에서는 기도로, 경기장에서는 축구로 신심을 키우며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삼학사 여성축구단 보살들의 함성이 우승을 점쳐게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신도들 위해 주지 스님이 권유 신심 키우며 얻은 자신감 포교로 전국 여성축구대회 우승 발원

도롱뇽 소송 홍보 위한 전국투어

“뜻모아 생명들에 희망을 줍시다”



지을 스님이 7일 부산시청앞에서 도롱뇽 소송인 100만명 모임을 위한 전국 순회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롱뇽 소송인단 백만명 확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 전국순회단(단장 지을)은 1월 7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첫 행선지인 전북 익산으로 출발했다. 실천불교부산운동본부 안승은 본부장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지을 스님은 “도롱뇽의 권리를

대행버스에 도롱뇽 그림을 붙이고 전국 순회에 나선 순회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재판부에 보내기 위해 쓴 그림엽서와 사진 등을 전시하며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11개 도시를 순회하게 된다. 1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

발대식 전북 익산에서 첫 홍보 활동 초·중·고생 그림엽서, 사진 전시 원고적격 판정 받기 위해 주력

리할 때까지 사 진전, 거리서명, 홍보 등을 통해 도롱뇽 소송에서 도롱뇽이 원고적격 판정을 받도록 여론몰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을 스님은 8일 원광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참교육 실천보고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지을 스님은 “16일 재판이 열린다.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도롱뇽 소송인단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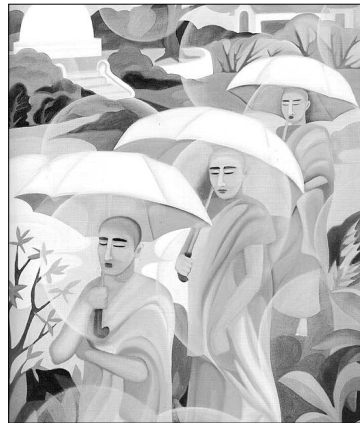
이제 주력할 계획이다. 지을 스님은 8일 원광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참교육 실천보고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지을 스님은 “16일 재판이 열린다.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도롱뇽 소송인단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을 빛낸 인물’

부산을 빛낸 인물선정위원회(위원장 김인식) 등의 대 이사장은 1월 1일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로 2개 분야 36명과 6개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종교사회분야에서는 범어사를 중심으로 선불교를 진작시키고 왜색불교 타파를 위한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한 경허 스님 1운동 영랑(1849-1912) 경허·동산 스님 등 36명 선정 과 동산 스님 으로 동래 1운동 영랑(1890-1965), 청신자의료보림조합을 설립해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기초를 닦은 장기려(1911-1995)선생 등 7명 이 뽑혔다. 또한 민족운동가 3·1운동 당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펼친 김갑(1899-1933)선생과 영남불교계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범린(1899-1964) 선생 등 21명이 선정

됐다. 학술·언론·교육 분야에서는 부산 향토사 연구에 초석을 다진 박원표(1910-1986) 선생과 한국 육종학 연구의 선두자인 우장춘(1898-1959) 선생 등 8명이 선정됐다. 부산을 빛낸 사건으로는 1919년 3·1운동 영랑(1890-1965), 청신자의료보림조합을 설립해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기초를 닦은 장기려(1911-1995)선생 등 7명이 뽑혔다. 또한 민족운동가 3·1운동 당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펼친 김갑(1899-1933)선생과 영남불교계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범린(1899-1964) 선생 등 21명이 선정

스리랑카 화가 세나카 특별전 현대백화점 울산점 27일까지



우산을 쓴 스님들. 스리랑카의 불교적 전통과 생활상을 담은 유화로 표현한 스리랑카의 국민화가 세나카 특별전인 현대백화점 울산점 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2004년 새해 해외작가 초대전으로 마

련된 이번 전시회는 1월 27일까지 계속되며 불교의 종교적 전통과 다양한 전설, 스리랑카의 꽃과 식물이 지닌 천연색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세나카는 1951년생으로 예일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온 이후 활발한 작업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9세의 나이로 첫 개인전을 가졌을 정도로 천재적 소질을 가진 작가로 20여 개국에서 100회가 넘는 개인전 및 초대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은 백악관, 베를린 주립 미술관 등 각국의 주요기관들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1983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제이씨의 오스카를 수상함으로써 재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나 동물은 머리에 밝고 투명한 후광이 서려있으며 이는 불성(佛性) 혹은 생명의 본질, 영혼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 울산점 (052)228-1020 **천미희 기자**

대구 운불련 11대 회장 이·취임식

개인택시 불자 운전자 모임인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이하 대구운불련)가 1월 6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11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보현신협 이사 원각 스님과 장영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등 2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 당선된 신상용(49, 법명 경덕)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대구운불련이 선진 교풍문화의 정착을 이끄는 것은 물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으뜸가는 불교신행단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한국운불련본부 사무총장과 대구운불련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배자선 기자**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류진수)는 1월 5일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48년 부산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를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개최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 스님은 법어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심으로 중생계를 불국토를 만드는데 맑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심한 한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대학원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전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울,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시	수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전	·전법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 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수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권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 서우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안(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 불교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남·주남·동남)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문예창작과(50명)	· 불교를 전공 · 신학과고자 ·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불교학과 2003년 12월 20일~ 2004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반)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처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문예창작과 : 2004년 3월 4,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심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